

올해 연등회 키워드는 세계 평화 · 한반도 통일

연등회 세부 일정 발표... 29일 광화문 점등식으로 시작

불기2559(201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광복70주년을 맞아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법석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연등회에서는 세계 종교인 평화 선언과 불교 통일론을 주제로 한 한반도 통일 선언이 발표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부처님오신날 주요 봉축행사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공식 일정 등을 공개했다.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봉축행사는 4월 29일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전국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광복 70년을 맞아 함께 열리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현대사회의 화두를 되짚고 이를 간화선을 통해 구현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연등회·기원대회 주요 일정

4월 29일
· 광화문 점등식

5월 15~26일
· 전통등 전시회 (조계사, 봉은사, 정계전)

5월 16~17일
· 연등회(어울림마당, 연등행렬 등)
·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간화선 무차대회, 수륙무차대제 등)

무차대회 개최로 의미 더해

광화문서 20만명 운집 예정

평화 염원 담은 종교인 선언

불교 통일론 주제 선언 발표

연등회에 태극기 · 한반도燈

평화 · 통일 메시지 담아

연등회 제등행렬도 평화 · 통일의 의미를 담아낼 계획이다. 올해에는 광복70주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등'이 행렬등으로 등장하며, 장엄등의 경우 '평화통일 한반도등', 평화 화합의 의미를 담은 '마애삼존불 등'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KTO)가 주관하는 외국 관광객 등만들기대회에서는 300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직접 자신의 등을 만들어 제등행렬에 참여하며, 행렬 이후에는 기원대회에도 참석해 평화를 기원하게 된다.

연등회와 함께 진행되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일정도 눈길을 끈다. 기원대회는 세계 20개국 해외 고승과 이웃종교지도자 300명이 참석하며 5월 15일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 이 자리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만찬사를 할 예정이다.

300명의 종교지도자들은 5월 16일 오전 10시 현충원을 방문하며, 오후 2시부터는 세계 불교와 이웃종교를 대표하는 20인이 모여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인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제임스 코왈스키 세인트 존 더 디비인 성당 수석 사제를 비롯한 이웃종교지도자와 텀 봉 캄보디아 승왕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회의를 거쳐 '세계 평화 기원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연등회 제등행렬이 마무리가 되면 기원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세계간화선 무차대회가 이어진다.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무차대회에서는 조계종이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한반도 통일선언'이 발표된다. 불교 통일 담론이 담긴 예정인 한반도 통일선언은 '합심 · 공존 · 상생'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최종 문안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도 무차대회에서 발표된다.

또한 최고의 선승(禪僧)으로 추앙받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는 간화선의 우수성을 되새기게 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앞서 참가 대중 모두가 10분간 선정을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돼 간화선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 같은 모습은 공중파를 통해 1시간동안 생중계될 예정이다.

5월17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계사에서는 한국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수륙무차대제'를 봉행한다. 한국전쟁 참전국 외교사절 등 국내외 불자 20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세계 고승 및 종교지도자 300명과 사부대중 20만 명이 함께 하는 연등회와 기원대회는 한국불교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연등회와 기원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관련 기사 3면)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는 4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공존과 화합을 위한 '2015이웃종교화합대회'를 개막했다. 사진은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알리는 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범종교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본격화

KCRP, 23일 이웃종교화합대회 개막... 운동 중앙본부 출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교가 자신을 본분 다해 '답게 살겠다'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는 4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공존과 화합을 위한 '2015이웃종교화합대회'를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소속 신도들의 범종교인 운동인 '답게 살겠

습니다' 운동 중앙본부도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KCRP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개회사에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며 "생명존중과 정의 지켜야 하는 때일수록 다양한 종교가 서로 이해와 화합을 통해 상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 갈등의 원인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

하지 못한 것에 있다"며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해 사회에 깊은 감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각자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며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회 개막과 함께 이날 '답게 살겠습니다' 중앙본부는 본격적으로 출범으로 알리고 대표 회장으로서 권길중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인 협회회장을 선임했다.

'답게 살겠습니다' 중앙 본부는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들이 공동회장

을 맡아 운영하며 7대 종단 각각 10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실행위원을 두게 된다. 불교 측 중앙본부 임원으로는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실행위원으로는 중앙신도회 회원 이송 · 이근혁 회원이 각각 위촉됐다.

한편,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웃종교 화합대회는 오는 7월과 8월 각 종단 시설에서 이웃종교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공감대를 높이는 '이웃종교스테이', 10월 전국 종교인들이 모여 나눔을 실천하는 '전국종교인 화합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선학원 추진위 매월 1회 회의 열고 '소통'

추진위 상임위 23일 1차 회의서 결의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매달 한 차례 회의를 열고 선학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왔다.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 이후에는 1박 2일 워크숍도 개최하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선학원정상화 상임위원회는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는 추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이 저조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한 후

"그간 선학원과의 대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해 왔다. 상임위원회가 선학원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논의를 이어가 추진위 활동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상임위는 추진위 활동 경과를 보고받은 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등스님은 "지난 원로회의에서 원로 스님들께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셨다"며 "현재 총림 방장 스님을 친견하고 의견을 여쭙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는 앞으로 월 1회 회의를 열어 선학원 임원진과의 대화 요청,

공감대 마련을 위한 지역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법등 스님은 이날 총무원 기획실에 선학원 기관지 불교저널에 대한 출입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법등스님은 "우리가 선학원과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언론을 출입금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의 의견과 논의가 직접 전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출입금지 해제를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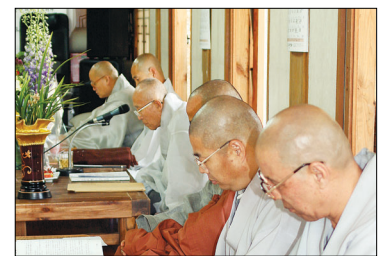
이에 대해 기획실장 일감 스님은 "선학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출입금지를 결정했다. 부실장 회의를 거쳐 해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신성민 기자

1042호 INDEX

시방세계 5
5월 관광 주간 가족과 山寺로



광복70년 불교70년 12·13
한국불교 역경 70년



海印叢林

제9대 방장 벽산당 원각 대선사 추대법회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추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두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 법회내용 | 봉행사 - 추대사 - 축사 - 불자 · 법장 봉정 - 법어

· 증명_ 법원 진제 대종사

불기 2559(2015)년 4월

해인총림 방장추대준비위원회 위원장 : 선해, 향적, 원택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사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문의 : 방장 사서실(010-8591-6371) / 해인사 종무소(055-934-3000)

